

사업비 19조 전남 현안사업 정부 예산 지원 동력 얻었다

김영록 지사 끈질긴 정부부처 설득
윤대통령, 민생토론회서 지원 약속
사업 추진 땀 생산유발효과 25조원
국립 의대 후속 조치 3월 내에 결론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주요 현안 사업이 합계 19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정부부처들이 미적거렸던 전남의 대규모 프로젝트들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어서 향후 3년간 구체적인 실행을 통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전남연구원은 이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전남지역 내 생산유발효과는 25조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0조7700억원에 달하며, 취업유발효과는 17만7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전남도민으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김영록 전남지사는 그동안 꾸준히 기반시설, 기간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으며, 정부부처를 상대로 끈질기게 설득해 지난 14일 민생토론회에 대거 포함시켰다. 특히 가능성이 낮았던 국립 의대 신설 안건까지 윤 대통령이 수용하게 하면서 3월 말까지 정부에 신설 방안을 제시할 경우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전남 국립 의대 신설 인원(100명)이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남도는 전망하고 있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이 언급한 전남의 현안은 영암-광주 초고속도로 건설(사업 예산 2조 6000억원), 강진-완도 고속도로 건설(1조5965억원), 전라선 익산-여수 구간 고속화(3조357억원) 등이다. 영암-광주 초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올해 예산에 용역비 3억원이 반영됐으며, 강진-완도 고속도로 건설은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했고, 전라선 익산-여수 구간 고속화는 지난 2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 상태다.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한 광양항 자동화(7371억원)는 정부와 전



오는 2026년 개통 예정인 고속국도 제255호선 광주~강진 간 고속도로 공사 구간.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지원을 약속한 강진-완도 구간은 2단계에 해당하며, 현재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남도가 지난해 11월 총사업비 협의를 마쳤으며, 예타가 면제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과 관련 전남은 오는 2031년까지 1조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전체 사업비(3조64억원)에서 전남에 투자되는 예산은 1조3020억원에 달하며,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1조2250억원)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앞두고 있다. AI 첨단 농축산업 융복합 지구 조성 사업(1조3463억원)도 이번 토론회에서 언급됐다.

국립 의대 설립의 경우 20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전남도는 기존 종합병원 협업 시스템 구축, 또는 매입 후 의대 병원으로 활용 등의 방법을 통해 투입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도 윤 대통령이 2차 전지와 콘텐츠 분야 등 전남의 발전 가능성이 큰 지역에 대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해 이번 민생토론회를 통해 전남은 정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최대치를 얻어냈다는 평가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역의 성장·발전을 위해서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도로, 철도, 항만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정부가 인식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며 "민생토론회에서는 논의된 사업들이 당장 올해부터 정부부처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 의대의 경우 목포대와 순천대가 수용한 공동 단일의대 방안을 우선 추진하되, 정부의 반응을 보면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융통성 있게 처리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의 전남 지원 방안이 확정된 것으로, 실질적이면서도 속도감 있게 국비를 확보해 사업의 성과를 앞당기는 것이 전남도의 과제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김현철 전남연구원 기획실장은 "이번 민생토론회에서 언급된 현안을 중심으로 정부부처는 내년 예산안을 작성하게 될 것"이라며 "관건은 다른 지역과의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고 정부 예산안에 전남의 요구안을 더 집어넣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의료대란' 전남대병원 200억 마이너스 대출 ▶6편

KIA 시범경기 김도영 맹타 ▶18편

팔도 건축기행 - 전주 전통성당 ▶22편

알립니다

광주일보 총선 특별취재팀 가동

광주일보사는 오는 4월10일 실시되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광주·전남 선거 현장 소식을 온·오프라인으로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공정하고 깨끗하고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과 지역발전을 위한 여야 후보자들의 공약을 심층적으로 비교 분석해 유권자들에게 신뢰할 만한 정보를 신속히 전달할 것입니다. 또한, 각 선거

구의 인물 검증과 여론, 판세, 민심 등을 현장 취재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 지역 현안을 제시하고 후보자들의 공약을 점검해 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보도할 것입니다.

광주일보 홈페이지에 '4·10 총선' 코너를 만들어 독자들이 총선 관련 기사를 찾기 쉽게 분류했으며, 네이버와 다음 포털에도 실시간 총선 관련 뉴스들을 제공합니다.

◇ 4·10 총선 특별취재팀

최권일 정치총괄본부장, 김지을 정치부 부장, 오광록 정치부 부장, 김해나 정치부 기자, 정병호 사회부 기자, 유연재 사회부 기자, 김다인 사회부 기자, 나명주 사진부 부국장, 최현배 사진부 부국장, 김진수 사진부 차장

光州日報社

민주당, 전남 4개 선거구 후보 선출

나주·화순 신정훈

영암·무안·신안 서삼석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권향엽



신정훈



서삼석



김문수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나주·화순과 영암·무안·신안 지역구의 결선 결과를 발표했다. <관련기사 2면>

결선 결과 나주·화순에서는 현역인 신정훈 의원이 손금주 전 의원을 이겼고, 영암·무안·신안에서는 현역인 서삼석 의원이 김태성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꺾고 공천권을 거머쥐었다.

앞서 나주·화순 선거구와 무안·영암·신안 선거구는 지난 10일부터 13일 3인 경선이 펼쳐졌지만, 1위 후보가 50% 이상을 얻지 못해 지난 16일부터 이날까지 결선 투표가 치러졌다.

민주당은 두 지역구 결선 결과를 끝으로 광주·전남지역 후보 경선을 모두 마무리했다.

광주지역 결선 결과 선거구 8곳 중 현역 의원 1명만이 생존했고, 전남지역에서는 선거구 10곳 중 5명의 현역 의원이 본선에 도전하게 됐다.

앞서 지난 16일 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선거구 후보 경선에서는 권향엽 전 청와대 균형인사 비서관이 현역인 서동용 의원을 꺾고 공천권을 따냈다.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지역구에서는 경선에

서 승리했던 손훈모 변호사의 경선 부정이 확인돼 후보가 뒤바뀌었다.

민주당 최고위는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경선에서 승리한 손 훈모 변호사의 경선 부정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근 손 변호사의 상대 후보였던 김문수 당대표 특별보좌역은 이중투표 유도, 셀프 인증 등 경선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최고위는 경선 부정을 확인한 뒤 경선에서 패배했던 김 보좌를 손 변호사 대신 공천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인준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0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기독교영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Sulwhasoo
THE ULTIMATE S CREAM
NEW 설화수 진설크림

